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1 pp. 208-217,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11.208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대학생의 결혼의식과 출산의식이 예비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

조은주, 안은선*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Awareness about Marriage and Childbirth on Pre-parent's Role of the Nursing students

Eun-Joo Jo, Eun-Seon An*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결혼의식 및 출산의식, 예비부모역할 정도를 알아보고, 결혼의식과 출산의식이 예비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B시 소재 4년제 대학의 간호대학생 202명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5월 11일에서 15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 정도는 경제상태, 이상자녀 수, 희망자녀 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들은 배타적 결혼관이 높았으며, 출산의식과 예비부모역할 정도은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비부모역할은 낭만적 결혼관, 소극적 결혼관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출산의식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하위요인 중 저출산 원인 및 심각성 인식과 국가·기업의 출산지원에 대한 태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예비부모역할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는 국가·기업의 출산지원에 대한 태도, 희망자녀 수, 경제적 수준, 소극적 결혼관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기업의 출산지원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26.9%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예비부모역할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지원과 보육시설 지원 등 국가와 기업의 출산지원을 높이는 정책과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awareness regarding marriage and childbirth on pre-parent's role of the nursing students. The subject were 202 nursing students in B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1 to 15, 2015 and analyzed by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re-parent's role based on economic status, ideal number of children, and desired number of children. Pre-parent's rol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romantic views regarding marriage and passive views on marriage. In addi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e-parent's role and the attitudes towards childbirth support by the nation and corporations. Meaningful variables that influenced pre-parent's role were ideal number of children, economic status and passive views on marriage. Total explanation power was 26.9% and attitudes towards childbirth as well as toward support by the nation and corporations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enhance pre-parent's role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childbirth support by the nation and corporations in the form of financial assistance and childcare facilities, as well as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describing the pre-parent's role.

Keywords : Awareness about Childbirth, Awareness about Marriage, Family, Nursing Students, Pre-parent's Rol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가족을 이루어 자녀양육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인격의 성숙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부모가 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당연한 것으로

*Corresponding Author : Eun-Seon An(Kosin Univ.)
Tel: +82-51-990-3982 email: naon1431@kosin.ac.kr
Received September 13, 2017 Revised (1st October 10, 2017, 2nd October 19, 2017, 3rd October 31, 2017)
Accepted November 3, 2017 Published November 30, 2017

여겨왔다[1, 2]. 그러나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결혼을 한 경우에도 출산을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저출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진행되어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인 극저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다[3, 4].

결혼의 감소와 저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됨과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동반하여 가족의 형태와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다[5].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1997년 73.7%에서 2005년 23.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6].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중요시되던 바람직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고 있는데, 결혼이나 출산에 당면하여 부모됨의 보상보다는 경제적 부담 등의 대가를 더 높게 인식하는 미혼남녀에 비해 부모됨의 동기가 비교적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부모역할의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7, 8, 9].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Erikson[10]은 한 개인이 성인단계에 들어서면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생득적 동기에 의해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역할은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지각하는 것으로 사회화의 기초가 되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11, 12]. 그러므로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된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며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에 쉽게 적응해 나감으로 자녀의 발달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13].

대학생의 시기는 발달단계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며 이성과의 친밀감을 구축해 나가는 시기로 결혼에 대한 욕구 또한 매우 구체화되는 예비부모세대라고 할 수 있다[7, 14],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여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고, 출산에 대해서는 신비롭고 소중한 경험이나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경험으로 생각하였다[15, 16]. 또한 부모됨에 대한 동기는 높았으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 및 취업여성의 영유아 양육고충에 대해 높이 인지하였고,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모역할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다[7, 8, 17]. 특히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결혼 및 자녀,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가치관이 낮았고 자녀출산의도가 낮았으며,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남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18, 19, 20].

간호대학생들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직업의 특성 상 81.6%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1], 남성에 비해 임신, 출산, 육아라는 생의 과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직 여성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의식 및 부모예비역할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예비부모세대인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또는 대학생을 포함한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15, 19, 22, 23, 24, 2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으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았고, 경제력을 결혼과 출산의 조건으로 생각하였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대학생들의 결혼의식과 출산의식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고 출산자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가 결혼률과 출산율을 높이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의 과정에 따른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고등학생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은 예비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대학생들은 부모됨의 대가보다 보상을 더 높게 인지하며 중간수준의 부모역할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7], 남녀대학생 모두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지하였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정도가 낮았다[9, 14].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의식 및 출산의식, 예비부모역할 정도를 확인하고, 결혼과 출산의식이 예비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결혼의식, 출산의식이 예비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결혼의식, 출산의식 및 예비부모역할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예비부모역할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결혼의식, 출산의식 및 예비부모역할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예비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들로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2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최소 표본의 수를 구하기 위해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8, 효과의 크기(fz)를 중간크기인 0.25로 두어 산출하였을 때, 최소 표본의 크기는 200명이었다. 설문지는 탈락율을 고려하여 230부를 배부하였고 213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20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대상자의 제 특성 12개 문항, 결혼의식 20개 문항, 출산의식 30개 문항 및 예비부모역할 23개 문항 등으로 총 8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결혼의식 측정도구

본 도구는 총 20개 문항으로 Kim 등[27]이 제작한 미혼여성들의 결혼 및 가족의식 조사 도구를 Lee와 Kim[29]이 수정하여 재구성한 설문지를 Yeo[25]가 사용한 도구이다. 낭만적 결혼관 5문항, 소극적 결혼관 6문항, 보수적 결혼관 3문항, 배타적 결혼관 2문항, 적극적 결혼관 2문항, 도구적 결혼관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이 의미하는 결혼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eo[2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 α= .6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 α=.68이었다.

2.3.2 출산의식 측정도구

본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Kim 등[27]이 제작한 “미혼여성들의 결혼 및 가족의식조사 도구와 Lee[28]의 전국 결혼 출산 동향조사도구를 Lee와 Kim[29]이 수정하여 재구성한 설문지를 Yeo[25]가 사용한 도구이다. 자녀가치관에 대한 13문항, 출산 계획 및 자녀양육 5문항,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견해 6문항, 저출산 원인 및 심각성 인식 3문항, 국가·기업의 자녀출산지원에 대한 태도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Yeo[2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 α=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 α= .74이었다.

2.3.3 예비부모역할 측정도구

본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Shin[30]이 개발하고, Kim[3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였다. Kim[3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 α= .86이었다.

2.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과제번호 1040549-150311-SB-0002-01) 자료수집을 시작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5월 11일

부터 15일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자가 B광역시의 K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잠재적 위험, 연구가 초래할 수 있는 불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기기입법에 의해 직접 작성하게 되었다.

연구자의 연락처를 동의서에 기입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질문할 수 있음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설명하였다. 동의서에는 비밀보장, 익명성과 자발적 동의 및 참여거부 가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문지와 동의서를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지정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보관하였고, 수집된 자료가 등록된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 불가하도록 하였다. 연구 자료는 연구 완료 3년이 지난 후 설문지는 분쇄기를 사용하여 파쇄할 것이고,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및 자료는 영구 삭제할 것이다.

Table 1. Degree of Pre-parent's Rol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2)

Variables	classification	n	%	Pre-parent's Role			
				M±SD	t/F	p	scheffe's
Gender	Male	24	11.7	85.16±6.40	1.33	.185	
	Female	182.	88.3	83.09±7.26			
Score	High	35	17.0	81.32±8.51	1.84	.161	
	Middle	137	66.5	83.56±6.54			
	Low	34	16.5	84.48±8.00			
Grade	1	51	24.8	83.19±6.65	1.73	.163	
	2	56	27.2	82.70±7.63			
	3	47	22.8	85.46±6.55			
	4	52	25.2.	82.38±7.53			
Numbers of Family	2	9	4.4	81.55±5.19	1.12	.347	
	3	15	7.3	84.26±6.86			
	4	124	60..2	83.87±7.08			
	5	54	26.2	81.95±7.70			
	Etc	4	1.9	86.75±7.36			
Living with Family	Yes	138	67.0	83.12±6.91	-.59	.556	
	No	68	33.0	83.76±7.72			
relationship	Yes	81	39.3	82.97±7.53	-.58	.561	
	No	125	60.7	83.57±6.96			
Economic status	High[a]	22	10,7	86.70±8.39	3.76	**.025**	a〉 c
	Middle[b]	171	83.0	83.18±6.80			
	Low[c]	13	6.3	79.83±8.65			
Intend of Marriage	Yes	190	92.2	82.25±7.97	-.63	.529	
	No	16	7.8	83.43±7.12			
Age of marriage(n=190) (Ave: 28.80 age, 25-36)	20-29	123	59.7	83.66±7.27	.59	.555	
	30-39	67	32.5	83.01±6.89			
Intend of Child	Yes	194	94.2	83.44±7.22	.83	.407	
	No	12	5.8	81.66±6.49			
Childbirth age (n=192)	20-29	67	32.5	84,28±8.11	1.20	.223	
	30-39	125	60.7	82.95±6.69			
Ideal number of children	Nothing [a]	7	3.4	81.28±8.28	4.24	**.003**	e〉 b
	1[b]	9	4.4	78.11±6.15			
	2[c]	127	61.7	82.69±6.68			
	3[d]	53	25.7	84.92±7.79			
	4≦[e]	10	4.9	89.40±5.23			
Desired Children Numbers (n=202)	1[a]	22	10.7	78.04±6.25	8.55	**.000**	b,c,d〉 a, d>b
	2[b]	111	53.9	82.95±6.89			
	3[c]	57	27.7	84.92±7.35			
	4≦[d]	10	4.9	89.63±4,67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결혼의식, 출산의식 및 예비부모역할 정도는 평균, 평균평점,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결혼의식, 출산의식 및 예비부모역할 정도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결혼의식, 출산의식 및 예비부모역할 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제 특성 중 성별은 여성이88.3%(182명), 성적은 중이 66.5%(137명), 학년은 2학년이 27.2%(56명), 가족 수는 4명이 60.2 %(124명),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67.0%(138명), 이성교제는 현재 하고 있지 않음이 60.7%(125명)로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는 중이 83.0%(171명), 결혼의향은 있음이 92.2% (190명), 희망결혼연령은 20-29세가 59.7% (123명), 자녀의향은 있음이 94.2%(194명), 자녀의향 연령은 20-29세가 32.5%(67명), 이상자녀 수는 2명이 61.7%(127명), 희망자녀 수는 53.9%(11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결혼의식, 출산의식 및 예비부모역할 정도

대상자의 결혼인식의 하위영역 중 배타적 결 혼관(3.43±0.6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낭만 적 결혼관(2.11±0.4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출산인식 정도는 평균이112.50±9.29(도구범위: 30-150), 평균평점이 3.75±0.30(척도범위: 1-5)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산인식의 하위영역 중 국가기업의 출산지원에 대한 태도(4.47±0.55)가 가장 높았으며,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견해(3.42±0.4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예비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평균이 83.33±7.18(도구범위: 23-115), 평균평점이 3.62±0.31(척도범위: 1-5)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Awareness about Marriage and Childbirth on Pre-parent's Role (N=202)

Variables	Item no.	Mean±SD	Min-Max	Average Mean±SD	Range
Awareness about marriage	20				
Romantic views on marriage	5	10.56±2.12	5-25	2.11±0.42	1-5
Passive views on marriage	6	18.33±3.88	6-30	3.05±0.64	1-5
Conservative views on marriage	3	9.21±1.62	3-15	3.07±0.53	1-5
Exclusive views on marriage	2	6.86±1.37	2-10	3.43±0.68	1-5
Active views on marriage	2	5.01±1.62	2-10	2.50±0.81	1-5
Instrumental views on marriage	2	6.28±1.14	2-10	3.14±0.57	1-5
Awareness about childbirth	30	112.50±9.29	30-150	3.75±0.30	1-5
Value of Children	13	45.49±5.09	13-65	3.49±0.39	1-5
Childbirth plan and rearing children	6	18.35±2.20	6-30	3.67±0.44	1-5
View on Work-Family balance	6	20.54±2.90	6-30	3.42±0.48	1-5
Recognize the causes and severityof low fertility	3	11.14±1.65	3-15	3.71±0.55	1-5
Attitudes towards childbirth support by the nation and corporations	2	8.94±1.11	2-10	4.47±0.55	1-5
Pre-parent's role.	23	83.33±7.18	23-115	3.62±0.31	1-5

3.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예비부모 역할 정도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예비부모역할 정도는 경제상태(F=3.76, p=.025), 이상자녀 수(F=4.24, p=.003), 희망자녀 수(F=8.55, p=.00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이상자녀 수에서 4명 이상이 2명보다 예비부모역할의 인식정도가 높았고, 희망자녀 수에서는 2명, 3명, 4명 이상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의 인식정도가 1명보다 높았으며 4명이상의 자녀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2명을 희망하는 경우보다 예비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4 대상자의 결혼의식, 출산의식 및 예비부모 역할의 관계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은 결혼인식 중 하위요인인 낭만적 결혼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31, p<.000), 소극적 결혼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우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15, p=.041).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은 출산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17, p=.017). 출산인식의 하위요인 중 저출산 원인 및 심각성 인식과 매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15, p=.032), 국가와 기업의 출산지원 태도와는 중간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43, p<.000)

즉, 대상자는 낭만적 결혼관과 소극적 결혼관이 낮을수록 예비부모역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의식이 높을수록, 출산의식의 하위요인 중 국가기업의 출산지원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예비부모역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Awareness about Marriage and Childbirth, and Pre-parent's Role

(N=202)

Variables	Pre-parent's Role r(p)
Awareness about marriage	
Romantic views on marriage	-.31**(.000)**
Passive views on marriage	-.15**(.041)**
Conservative views on marriage	-.14(.056)
Exclusive views on marriage	.01(.886)
Active views on marriage	-.08(.261)
Instrumental views on marriage	.13(.061)
Awareness about childbirth	.17**(.017)**
Value of Children	.07(.352)
Childbirth plan and rearing children	.13(.072)
View on Work-Family balance	.04(.548)
Recognize the causes and severity of low fertility	.15**(.032)**
Attitudes towards childbirth support by the nation and corporations	.43**(.000)**

3.5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제 특성 변수를 단계적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낭만적 결혼관, 소극적 결혼관, 출산인식, 저출산 원인, 국가기업의 출산지원에 대한 태도와 제 특성 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경제상태, 이상자녀 수와 희망자녀 수를 분석하였다. 이중 명목척도인 경제상태, 이상자녀 수와 희망자녀 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회귀분석의 공차한계 값이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re-parent's Role with Predictor variables (N=202)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Constant	55.43	4.91		11.30	.000	
Attitudes towards childbirth support by the nation and corporations	2.39	.41	.37	5.79	.000	.15
Desired Children Numbers	2.46	.61	.26	4.02	.000	.26
Economic status	2.66	1.12	.15	2.38	.018	.26
Passive views on marriage	-.25	.12	-.13	-.2.02	.045	.27

Tolerance=0.93-0.99, VIF=1.01-1.08, Durbin-Watson=2.07 Adj. R^2=.27, F=17.95, p< .001

Dummy variable(Economic status: 1=High 0=Middle, Low, Ideal number of children: 1=4≦, 0=1, 2, 3)

factor, VIF) 값은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2.072로 나타나 2 에 가까우므로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모형의 Adj. R^2 값은 .269로 측정변수들의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26.9%이었다.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기업의 출산지원에 대한 태도(β=.371)로 설명력은 15%이었으며, 다음으로 희망자녀 수(β=.262), 경제적 수준(β=.151), 소극적 결혼관(β=-.130) 순이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예비부모역할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결혼의식에 대한 하위영역 중 배타적 결혼관이 3.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낭만적 결혼관이 2.1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한 Lee와 Kim[29]의 연구에서는 낭만적 결혼관이 3.98점으로 가장 높고 보수적 결혼관이 3.08점으로 가장 낮게 나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Lee와 Kim[29]의 연구에서는 여학생(59.6%)이 남학생(40.4%)에 비해 조금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88.3)이 남학생(11.7%)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대상자의 제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배타적 결혼관은 결혼을 현실적이지 않고 환상적이고 낭만적으로 지각하는 낭만적 결혼관과는 달리 결혼보다는 자아계발이 더 중요하고 혼자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들은 배타적 결혼관이 높았다. 이는 산업화와 함께 특히 여성의 역할이 다양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추세와 함께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35]. 따라서 이러한 성별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예비부모역할을 위한 교육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출산의식에 대한 평균평점이 3.75점 이었으며 국가·기업의 자녀출산 지원에 대한 태도(4.47점)가 가장 높았으며 일·가정 양립에 대한 견해(3.42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25]의 연구에서 국가·기업의 자녀출산지원에 대한 태도(4.10점)가 가장 높고, 출산계획 및 자녀 양육(3.22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특히 국가・기업의 자녀출산 지원에 대한 태도가 4점 이상의 매우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것은 자녀 출산 및 육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 사회와 단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반영한다[29]. 따라서 저출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과 기업과 사회의 공동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직장 내에서의 보육시설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출산이나 양육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의 확충이 조속히 마련되어야겠다.

또한 출산의식에 대한 하위요인 중 일·가정 양립에 대한 견해(3.42점)가 가장 낮은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간호대학생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전문 여성 인력 중의 하나인 간호직은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의식이 강하고 직업의 특성 상 평생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34].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에 대한 평균이 83.33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Yeo[25]의 연구에서 남자 53.04점, 여자 52.05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보다 매우 높은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Yeo[25]의 연구 대상자는 고등학생인데 비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생으로, 대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성숙되어 있고 현실을 보다 사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과 대학생들의 부모역할이 현실적으로 더 가까운 점을 미루어 볼 때 훨씬 더 구체화된 고민과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31].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예비부모역할 정도는 경제상태, 이상자녀 수, 희망자녀 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상태가 좋고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를 원하는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측정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Yoo[32]의 연구에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과도한 헬리콥터 부모역할, 즉 과잉부모역할을 경험한 대학생들은 부모역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담감을 크게 느끼게 되어 더 작은 수의 자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강하며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론된다.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은 결혼의식 중 하위요인인 낭만적 결혼관과 소극적 결혼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출산의식과 출산의식의 하위요인 중 국가·기업의 출산지원에 대한 태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낭만적 결혼관과 소극적 결혼관이 낮을수록 예비부모역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의식이 높을수록, 출산의식의 하위요인 중 국가·기업의 출산지원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예비부모역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예비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의식 중 낭만적 결혼관과 소극적 결혼관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적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업의 출산지원에 대한 태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지원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국가·기업의 출산지원에 대한 태도, 희망자녀 수, 경제적 수준, 소극적 결혼관이었다.본 연구의 대상인 간호대학생들은 국가·기업의 출산지원이 좋다고 인식하며 희망자녀수가 많고, 경제적 수준이 높고 소극적 결혼관이 낮을 때 예비부모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기업의 출산지원에 대한 태도는 예비부모역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Do[17]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은 자녀 1인당 고정액수의 현금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현금지원과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으로 응답하였다. 즉, 경제적 지원과 보육서비스가 중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지급되며, 저소득층을 위주로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정책을 현실화하여 출산 세대에 보편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접근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또한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폭 넓은 세제의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국가 뿐 아니라 기업과 민간단체의 공통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겠다.

여성들은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받고 이와 더불어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연수가 필요한 반면, 주부로서 자녀 양육과 가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며 근무하는 취업여성들에게 직장 내 보육시설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전문인력의 비중이 많은 간호사는 타 직종에 비해 고학력과 많은 임상경험을 쌓고도 출산과 이어지는 육아문제로 인해 퇴직이나 휴직 등을 갈등하거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지원을 위한 직장 보육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병원들은 그 수가 매우 적으며 그나마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도 교대근무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간과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출산과 부모역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3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의 지원을 위해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운영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지원과 방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의식의 하위영역 중 소극적 결혼관이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결혼관이 높을수록 예비부모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결혼관이란 “지금 결혼하면 결혼에 실패할 것 같다”,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기 힘들다”, “결혼보다 자유로운 생활이 더 좋다”, “친구나 동료가 배우자보다 낫다” 등의 부정적이며 회피적인 성향을 띠는 결혼관을 의미한다. 소극적 결혼관은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결혼과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Kim[31]의 연구에서 예비부모세대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고등학생에게 결혼과 부모됨의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대학생에게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예비부모세대인 대학생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사회경제적인 요인 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위한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정규 수업과정 및 특강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은 올바른 결혼관과 출산의식을 갖게 하며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준비와 기대를 갖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결혼과 출산의식이 예비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예비부모역할 정도는 경제상태, 이상자녀 수, 희망자녀 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은 결혼의식의 하위요인인 낭만적 결혼관 및 소극적 결혼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출산의식과 통계적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출산의식의 하위요인 중 국가기업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예비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국가·기업의 출산지원에 대한 태도, 희망자녀 수, 경제적 수준, 소극적 결혼관이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예비부모역할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적 지원과 보육시설의 마련 등을 통해 국가·기업의 출산지원을 높이고 예비부모세대로서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J. H. Kim, J. N. Jung, Y. J. Jo, J. A. Han. “Parent education”, Yangseowon, Gyeonggi-do, 2013.

[2] W. Y. Lee, J. M. Lee. “Pre-parenting education for undergraduates”, Bookcafe, Seoul, 2007.

[3] S. S. Wang,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ed with the future social change : focusing on the new recognition of the characteristic as the subjects for life and happines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 28, no. 3, pp 17-32, 2016.

[4] Statistis Korea, “2010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results”, Avali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Accessed March. 15, 2013).

[5] D. S. Kim, “A study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marriage, child care and family life in low fertility socie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07-18-02, 2008.

[6] S. S. Lee, “A study on causes of low fertility and national pla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2005.

[7] Y. J. Lee, “ A study of the parenthood motivation, perceptions of becoming a parent, and confidence about parental role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92, pp. 1-18, 2015.

[8] Y. R. Hur, “A Study on the Knowledge of Pre-Parenting for the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Research*, vol. 27, no. 2, pp. 45-65, 2007.

[9] H. K. Chang, “Low Childbirth and Family Policy In Korea”, *Family study*, vol. 21, no. 1, pp. 91-106, 2007.

[10] Erikson, E.,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50.

[11] Johnston, C., Mash, E. J.,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8, pp. 167-175, 1989.

[12] M. O. Chae, S. Y. Im, Y. K. Ji, “Valid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rception of parental role inventory in non-parent women”,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 7, no. 2, pp. 1-20, 2013.

[13] O. B. Jung, S. H. Jung, “Parental education”, Hakjisa, Seoul, 2007.

[14] O. B. Jung, J. H. Im, S. H. Jung, K. E. Kim, Y. J. Park, “Attachment to parents, motives for parenthood and perceptions of parental roles amongst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A working model”.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15, no. 4, pp. 67-91.

[15] H. G. Kim, J. Y. Seo, “Factors Impacting on the Marital and Childbearing Willingn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vol. 52, pp. 175-206, 2012.

[16] H. J. Kwon, Y. J. Kim, S. J. Kwon, S. A. Park, Y. M. Ahn, G. S. Oh, K. S. Le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Childbirth as a Challen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1, pp. 175-200, 2011.

[17] M. H. Do,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wareness on marriage and childbirth to future marriage and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6, no. 4, pp. 163-178, 2011.

[18] S. Y. Lee, D. A. G. Hong, “The Study on the Idea of Marriage and Childbirth Will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9, no. 2, pp. 3-28, 2014.

[19] H. S. Kim, J. S. Park, E. J. Jo, “The Perceptions of Marriage and Childbirth of Health Care Fields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5, no. 2, pp. 131-146, 2011.

[20] K. S. Kim, “ A Study on the views of Marriage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Sciences”,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12, no. 1, pp. 217-225, 2011.

[21] Korea Education Statics Service, “Number of Students by major category(sub-category)(enrollment, attendance/ leave of absence)”, Avaliable

http://kess.kedi.re.kr/eng/index. (Accessed September. 22, 2017).

[22] Y. H. Joo, “A Study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concerning marriage and childbirth in the low birthrate era”, *Journal of Gimcheon College of Science*, vol. 35, pp. 29-35, 2009.

[23] H. Y. Shin, E. R. Bang, “Youth perceptions on Childbirth and Marriage”,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5, no. 3, pp. 95-113, 2008.

[24] H. M. Choi, H. M. You, J. H. Kim, T. W. Kim, “Awareness of the non-marriage of young people and countermeasures against low birth rat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6-19

[25] S. N. Yeo, The effect of awareness about the high school student's marriage and childbirth to pre-parent's role“, Dongshin University, Jeollanam-do, 2014.

[26] Y. M. Na, M. K. Kim, “Research on the Values the Pre Parents Generation Places on Marriage and Childbirth”,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6, no. 2, pp. 215-234, 2012.

[27] H. Y. Kim, B. Y, Seon, S. D, Kim, J. H., “A study on late marriage and low fertility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vol. 16, pp. 1-277, 2009.

[28] S. S. Lee, “2005 national survey on dynamics of marriage and fertili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2005.

[29] B. R. Lee, S. O. Kim,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of Marriage and Childbirth”,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7, no. 2, pp. 155-175, 2012.

[30] H. Y. Shin ,“Program Development for Preparent Eduction”, Donga University, Busan, 1996.

[31] J. M. Kim, “Pre-parent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program out-com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8, no. 4, pp. 65-85, 2004.

[32] G. S. Yoo, "Effects of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on Intention of Childbirth and Desired Number of Childre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vol. 12, no. 3, pp. 5-12, 2014.

[33] I. S. Sohn, H. M. Kim, K. O. Park, S. S. Han, "Nurses' Demands on Child-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6, no. 1, pp. 51-60, 2010.

[34] J. W. Oh, Y. S. Moon, I. S. Park, "A Study of nurses' working stress, child-rear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vol. 11, no. 10, pp. 469-481.

[35] H. J. Kim, “Factors that affect perception of marriage and childbirth across unmarried men and women”, Kyunghee University, Seoul, 2010.

조 은 주(Eun-Joo Jo) **[정회원]**

- 2000년 8월 : 고신대학교 보건학원 보건과학과 (보건학석사)
- 2004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학박사)
- 2005년 1월 ~ 2007년 12월 : 한국보건교육협의회 부산지부 사무국장
- 2012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보건교육, 국제간호. 간호선교

안 은 선(Eun-Seon An) **[정회원]**

- 2009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9년 2월 ~ 2013년 3월 : 동래직업재활센터 센터장
- 2014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지역사회정신간호, 직업재활, 영적간호